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류석춘 · 왕혜숙 · 박소연**

[논문요약]

한국사회의 전통적 1차 공동체인 연고집단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오픈 한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연고집단의 귀속성과 폐쇄성은 집단 내부 차원에서는 강한 호혜성의 규범과 내집단 신뢰를 형성하지만, 집단 외부의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보편적 신뢰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 왔다. 이러한 연고집단 비판은 시장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제도에 기반한 일반적 신뢰의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연고집단과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자발적 결사체가 이러한 보편적 신뢰를 만들어 내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동창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수집한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연고집단 비판론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는 집합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폐쇄성과 특정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제한된 신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의 경우 강한 내집단 신뢰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오히려 신뢰 부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재발견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신뢰의 문제에 몇 가지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실제 시장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낮은 타인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에 놓여

* 이 논문은 2003년부터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한국의 사회자본: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과제번호 KRF-2003-074-BS0033)의 일환이다. 이 논문에 등장하는 면접 사례들은 이 과제의 2차년도 작업 “현대 한국의 인간관계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8개 집단(어촌계, 향우회, 동창회,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종친회, 각각 1백 명 목표) 가운데 동창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 및 면접 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 연구책임자는 류석춘, 공동연구자는 왕혜숙, 박소연이다.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제한적 신뢰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편적 신뢰라 부르는 개념은 사회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사회학적 인 신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집단의 구성 원리와 연결망의 형태만으로 사회자본의 특성과 효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 내부에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호혜성이 어떻게 공유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제어 : 연고집단, 자발적 결사체, 사회자본, 일반적 신뢰

I. 머리말

사람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관계는 공식적인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85; Platteau, 1994a; 1994b; Rauch & Hamilton, 2001; 류석춘·왕혜숙, 2008). 사회자본이 최근 각광받는 연구 주제로 급부상하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자본은 이러한 제도들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utnam, 1993; 후쿠야마, 1996).

그러나 모든 사회자본이 이러한 신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사회자본은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서로 다른 효과와 속성을 가진다. 어떤 사회자본은 집단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 지점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연고집단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고집단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연고집단을 전근대적이고 파당적인 연줄망으로 규정한다(김용학, 1996; 김용학·손재석, 1998; 이재열, 1998; 2001; 이재혁, 1998; 2006; 박찬웅, 1999a). 이들은 파당적 연결망이 집단 간의 배타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인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집합적 이해를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경우 이들의 사회자본은 공식적인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김우식, 2004). 그 결과 한국사회에는 서구와 다른 왜곡된 시장이 등장한다. 또한 배타적이고 강한 연고집단의 내집단 신뢰가 집단을 넘어서는 ‘일반적 타자’(others in general)에 대한 ‘보편적 신뢰’의 형성을 막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 역시 지체된다.

만일 연고집단의 사회자본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반자본’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로 일컬어지는 연결망, 호혜성, 신뢰 가운데 어떤 요소로부터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가? 연고집단 비판론자들은 연고가 가지는 폐쇄성과 귀속성이라는 연결망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논점이 한국사회의 연고집단과 퍼트남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태로 본 자발적 결사체를 대척점에 서도록 만든다.

그러나 조직의 형태와 연결망의 속성만으로는 사회자본의 효과나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이재혁, 2007). 실제한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에 많이 참여하는 구성원일수록 동료 시민에 대한 불신의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유재원, 2000). 신뢰의 차원과 결사체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한 다른 경험적 연구는 이상적인 자발적 결사체로 여겨지는 시민단체의 성원들이 다른 종류의 결사체들 즉 동창회, 종친회, 친목 및 여가모임보다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선미, 2004a: 102). 마찬가지로 연고집단이 강한 정서적 통합에 기초한 강한 연대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약한 연대로 존재함을 밝히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류석춘·장미혜, 2002a; 강수택, 2003; 최우영, 2006a; 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2006).

이 논문은 연결망의 형태와 속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집단이 공유하는 신뢰 및 호혜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적인 연고집단인 동창회와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단체에 존재하는 신뢰를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논문은 신뢰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시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지를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 가운데 어떤 조건과 구성원리를 가진 집단이 바람직한 신뢰를 생산하는 데 더욱 적합한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이질적인 집단 즉 동창회와 시민단체가 보여주는 사회자본의 성격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양적 및 질적 방법을 동

원해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집단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신뢰의 형태가 서로 어떻게 다르고, 또한 그러한 신뢰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정리한다.

II. 신뢰와 사회자본

1. 어떤 신뢰가 중요하며, 그것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신뢰의 개념적 정의는 무엇인가? 신뢰란 일반적으로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신뢰의 개념을 체계화한 주커(Zucker, 1986)에 의하면 “신뢰란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의를 넘어서 신뢰의 유형과 그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주커는 신뢰에는 두 개의 주요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s)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적 기대’(constitutive expectations)이다. 배경적 기대는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믿는 집단적 이해(understanding)를 말한다(Schutz, 1962: 207-259). 이러한 기대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표준화된 상징체계와 부호화된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창조된다. 다시 말해 배경적 기대는 한 공동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석의 틀을 말한다. 반면에 구성적 기대는 개별적 이해(interests)나 집단적 이해(understanding)와 상관없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나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말한다(Garfinkel, 1963: 190). 예컨대, 교환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 힌두교 신자이건 기독교 신자이건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칙에 대한 수요가 바로 구

성적 기대를 만들어 낸다. 구성적 기대에서 말하는 특정한 영역이 교환에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성적 기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집단 차원의 상징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원칙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 즉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커에 따르면 신뢰가 ‘생산되는 방식’(modes of trust production)에 따라 그것이 만들어 내는 기대의 내용이 달라진다. 주커가 제시한 신뢰의 생산방식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과정기반’(process-based) 신뢰의 생산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신뢰는 평판의 형성이나 선물의 교환과 같이 개인이 과거에 겪은 혹은 미래에 겪을 교환의 과정과 관련되어 경험적으로 발생한다. 두 번째는 ‘특성기반’(characteristic-based) 신뢰의 생산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신뢰는 가족적 배경이나 민족성과 같이 개인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여 생성된다. 마지막 방식은 ‘제도기반’(institutional-based) 신뢰의 생산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신뢰는 특정한 제도적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예컨대 회계사의 공증) 또는 제도적인 중개 장치(예컨대 제3자 기탁예금)에 의해 생성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주커는 과정기반 신뢰와 특성기반 신뢰는 배경적 기대를, 그리고 제도기반 신뢰는 구성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커의 제도기반 신뢰가 제도에 대한 직접적 신뢰가 아니라 제도를 매개로 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커의 신뢰에 대한 분석은 개인 간 신뢰 즉 대인 신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아마기시 역시 대인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아마기시, 2001). 그는 신뢰의 유형을 우선 두 가지로 나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인 ‘일반적 신뢰’, 그리고 상대의 신뢰성 정도를 시사하는 정보에 기초한 ‘정보의존적

신뢰'가 그것이다. 다음, 정보의존적 신뢰는 다시 상대방이 보여 주는 구체적인 행동에 따른 평가나 주변의 평판에 기초한 '개별적 신뢰' 그리고 인격에 대한 판단이 그가 소속된 집단의 범주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분류집단별 신뢰'로 구분한다. 따라서 야마기시의 '개별적 신뢰'와 '분류집단별 신뢰'는 각각 주커의 '과정기반 신뢰'와 '특성기반 신뢰'와 대응하는 개념이다.¹⁾

한편 이선미(2004a)는 주커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신뢰를 '경험기반적 신뢰', '제도기반적 신뢰', '성찰적 신뢰'라는 세 범주로 분류한다. 첫 번째 경험기반적 신뢰는 주커의 과정기반 신뢰와 특성기반 신뢰를 묶은 개념이며, 제도기반적 신뢰는 주커의 제도기반 신뢰와 동일한 것이다. 여기에 이선미는 주커와 달리 성찰적 신뢰를 추가하는데 이는 맹목적인 개인간 신뢰의 유형으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다.²⁾ 이러한 성찰적 신뢰는 퍼트남과 후쿠야마가 개념화하는 '보편적 신뢰'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보편적 신뢰와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신뢰는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utnam, 1993; 후쿠야마, 1996).

앞의 세 학자가 신뢰에 대한 논의를 대인 차원에만 한정하였다면, 김용학은 신뢰의 대상에 제도를 포함시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분한다(김용학·손재석, 1998). 김용학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능력'과 '의도'에 대한 신뢰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서도 상

1) 야마기시는 이 두 범주를 묶어 '인격적 신뢰'로 명명한다. 그는 인격적 신뢰 외에도 상대가 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감정이 호의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인간관계적 신뢰'의 개념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대해 갖는 태도와 감정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개별적 신뢰와 집단분류별 신뢰와 중첩되는 발생 메커니즘을 갖는다고 판단되어 이 개념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였다.

2) 이선미의 연구는 이념형적으로 신뢰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성찰적 신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찰적 신뢰가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해석을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선미, 2004a: 97-98). 이 글에서도 성찰적 신뢰는 일단 논외로 한다. 왜냐하면 성찰적 신뢰의 핵심인 개인의 미래에 대한 행위지향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방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신뢰라고 평가한다. 한편,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상식과 반복적인 실천과 관련되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기대되는 특정 행동에 대한 규정성을 의미한다.³⁾ 김용학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모두 ‘사적 신뢰’로 분류하는데, 그 이유는 익명인 사람의 의도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본질적으로 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용학·손재석, 1998: 118-119). 김용학은 개인 간 신뢰가 타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⁴⁾

유사한 맥락에서 이재열(1998; 2001)은 신뢰를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재열의 공적 신뢰는 공식제도 즉 공적 기구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은 규칙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다. 또한 대인 신뢰인 사적 신뢰는 연고와 같은 폐쇄적 연결망을 따라 제한된 개인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신뢰를 지칭한다. 이재열의 논의에서 타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의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맥락에 비추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열과 마찬가지로 이재혁도 개인 간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각각을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로 명명한다(이재혁, 2006: 63).⁵⁾ 그러나 그가 명명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의 개념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 생성되는 신뢰인지 아니면 타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설문 문항을 확인해 보면,⁶⁾ 그가 사용하는 사회적 신

3) 김용학의 ‘제도에 대한 신뢰’ 개념은 주커의 구성적 기대와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4) 김용학은 논문에서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이 개념은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가 만들어 낸 행위자 일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 기반 신뢰와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5) 이재혁의 다른 연구(1998)에서는 제도적 신뢰를 ‘공적 신뢰’로 지칭하기도 한다.

되는 타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혁의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은 김용학과 이재열이 사용하고 있는 제한된 특정 개인들 사이의 사적 신뢰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신뢰의 생산 메커니즘과 신뢰의 대상에 따른 신뢰의 유형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신뢰의 구분

	발생(생산) 메커니즘			대상/범위		
	과정	특성	제도	사람		제도
				limited (제한적 관계)	others in general (타인 일반)	
Zucker(1986)	과정기반	특성기반	제도기반	배경적 기대	구성적 기대	-
퍼트남(1993) 후쿠야마(1996)	-			*	일반적 신뢰 보편적 신뢰	-
야마기시(2001)	개별적 신뢰	분류집단 별 신뢰	-	-	일반적 신뢰	-
이선미(2004)	경험기반적 신뢰		제도기반	-		
김용학(1997)	-	-	-	사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이재혁(2006)	-			-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
이재열(2001)	-			사적 신뢰	-	공적 신뢰

* 퍼트남과 후쿠야마는 특정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한된 범위를 가진 신뢰를 신뢰의 특정 유형으로 명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이러한 상태는 저신뢰 상태 또는 신뢰가 없는 상태로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 6) 이재혁의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된다(이재혁, 2006: 70). 이렇게 볼 때 그가 범주화하고 있는 신뢰의 두 가지 유형(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적 신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이들 모두가 창조하고 싶어하는 바람직한 신뢰의 형태는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 즉 일반적 신뢰 또는 보편적 신뢰이다. 이들은 모두 이러한 보편적 신뢰가 시장과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전제한다. 두 번째, 이들은 모두 보편적 신뢰라는 이상적 목표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도기반 신뢰는 타인에 대한 보편적 신뢰를 만들어 내는 반면 과정기반 신뢰와 특성기반 신뢰는 일반적 신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 이 두 형태의 신뢰 형성 과정이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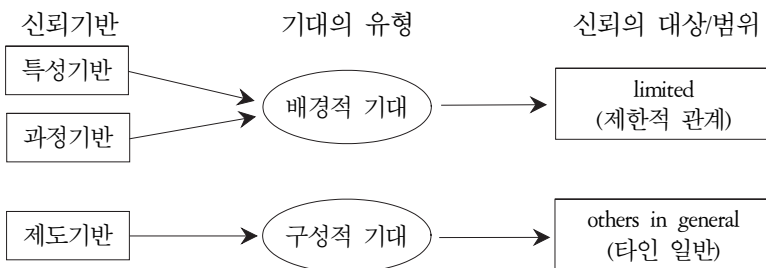
주커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적 기구와 장치들이 신뢰를 다시 생산해 냈는가를 보여 준다(Zucker, 1986). 주커는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배경적 기대를 통해 유지되던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확장과 발달이 인구의 이동과 사회적 이질성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새로이 나타난 시장 질서에서는 공동체 외부에 있는 타인과의 거래와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기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녀는 특정 구성원들에게만 공유되는 배경적 기대에 기초한 강한 내집단 신뢰가 구성적 기대에 기초한 보편적 타자에 대한 신뢰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한다.

김용학은 정상적인 시장과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신뢰의 형태는 특정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신뢰 즉 보편적 신뢰이며 이것이 가능할 때 사회적 협동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1997: 100-103; 김용학·손재석, 1998: 119). 이재열 역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단힌 관계 즉 사적 신뢰에 국한되지 않는 열린 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사적인 신뢰는 시장과 민주주의 작동에 필요한 보편적 신뢰의 발생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1998; 2001). 이재혁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는 일반적 타자 간의 보편적

신뢰와 결사에 근거하며, 폐쇄적 연결망에 기초한 사적 신뢰는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진단하면서 연줄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 대립적 관계에 주목한다(2006).

또한 이들은 모두 폐쇄된 관계를 넘어서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도에 기반한 신뢰의 생산에서 찾는다. 이재열이 제기하는 “불신의 제도화”라는 개념은 제도기반 신뢰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주장이다(이재열, 2001). 그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투명한 공적 규칙과 원칙의 부재로 인해 사적인 신뢰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한국사회의 신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소한의 신뢰를 그리고 최대한의 위험을 가정하는 ‘고불신체제’를 제안한다. 김용학 역시 제도에 기반한 신뢰는 지연 및 학연 등과 같은 사적 연결망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자들에 대한 신뢰, 즉 보편적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김용학·손재석, 1998).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뢰의 형성 경로



*주: Zucker(1986), Putnam(1993), 후쿠야마(1996), 김용학·손재석(1998), 이재혁(2006), 이재열(2001), 이선미(2004a)의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이러한 제도기반 신뢰 주장에 대해 우리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과연 우리는 일반화된 타인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가?⁷⁾ 혹은 그것은 상상적 개념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일반화된 타인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일반적 신뢰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성립하는가라는 문제는 본고의 핵심 주제가 아니므로 일단 논외로 한다.⁸⁾ 일부 문헌들은 일반적 신뢰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기도 한다(류석춘·장미혜·배영, 2002; 이재혁, 2006). 이때 주로 사용하는 측정 방법은 “모르는 타인(외국인)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위협에 빠져 그리 많지 않은 현금을 요구할 때 도와줄 수 있는가” 등의 설문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신뢰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risk) 다른 말로 사회적 불확실성(social uncertainty)의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박찬용, 1999a; 야마기시, 2001; 강수택, 2003; 이재혁, 1998; 2006). 필자들로서는 타인에게 단순히 조그만 선의를 베푸는 것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즉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선의를 베푸는 것을 두고 신뢰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⁹⁾

무엇보다 우리들은 시장과 민주주의가 더욱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보편적 신뢰인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는 배태(embeddedness)라는 개념을 통해 행위자를 둘러싼 구체적인 인간 관계가 신뢰를 만들어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¹⁰⁾ 배태는 일반화된 도덕성(generalized morality)이라는 규범을

7) 이러한 질문은 김용학·손재석(1998)의 논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사적일 수밖에 없는 대인 신뢰를 제도기반 신뢰를 통해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8)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제한적인 합리성’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부정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전제한다(Williamson, 1975). 즉 타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9) 오히려 이는 사회자본의 다른 차원인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10)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의 연구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를 인정하는 가운

내면화한 즉 과잉사회화된 인간을 통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주장이 아니다. 이는 구체적인 개인 간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가 이기적 개인 간에 신뢰를 제공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시장 외적인 사회관계가 경제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개념이다(Rauch & Hamilton, 2001: 15).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보편적 신뢰라기보다는 행위자와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 배태된 제한적 신뢰인 셈이다. 개인적 관계로부터 유리된 몰인격적인 시장은 신화에 불과하다(류석춘, 2002a).

한편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퍼트남이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의 모태로 보았던 이탈리아 북부의 활발한 자발적 결사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퍼트남이 강조하는 시민적 전통의 기반은 빈번한 면대면 접촉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마을주민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¹¹⁾ 다시 말해 퍼트남의 시민적 결사는 신뢰의 대상이 제한적인 집단들이고, 이를 주커의 개념과 연관지으면 다름 아닌 배경적 기대에 기초한 신뢰를 제공하는 단체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호면식이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 또는 신뢰의 학습과정이다(Putnam, 1993).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 관계 속에서 공유되는 배경적 기대에 기초한 신뢰이다.¹²⁾ 그렇지 않

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경제생활에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신제도주의 경제학 특히 윌리엄슨(Williamson, 1975)이 제시한 해법 즉 '시장과 위계'(market and hierarchy)를 비판한 연구이다. 그라노베터는 윌리엄슨의 해법이 과소사회화 및 과잉사회화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사회관계에 배태된 인간의 선택'이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11) 퍼트남의 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단체들은 성가대, 독서 클럽, 뜨개질 모임, 스포츠 동호회 등이다(Putnam, 1993).

12) 코헨 역시 퍼트남이 본 자발적 결사의 모습은 면대면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generated in face-to-face relationships*)에 가까우며 이는 일반적 신뢰와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Cohen, 1999; 221).

고서야 퍼트남이 면대면 접촉을 만들어 내는 자발적 결사체의 감소를 두고 ‘혼자 볼링하기’라는 냉소적 표현을 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한탄할 이유가 없다(Putnam, 1995).

두 번째로 우리는 제도기반 신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주커(Zucker 1986)는 공증이나 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구성적 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일반적 신뢰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를 만들어 내는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모두 신뢰와 관련된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직면한다(Demsetz, 1967; Oberschall, 1985; Polanyi, 1957; Ostrom, 1990).¹³⁾ 신뢰를 생산하는 장치와 제도들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므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도가 일단 확립되면 그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기회주의적 선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신뢰 생산장치의 생산이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신뢰 생산장치의 생산에서 나타나는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행위자들 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 공증제도, 보험제도, 구제장치 등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신뢰를 낳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다. 국가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거나 유리

13) Popkin(1979)이 관찰한 농민경제의 사례는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Oberschall, 1985). 여러 농가가 농경용 가축을 공유하는 것이 각 농가가 가축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데도 농민경제에서는 가축의 공동소유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가축을 공유하게 될 때 상대방이 가축을 얼마나 부러먹을지 또는 공유하게 될 가축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가축을 공유하지 않고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개인소유의 가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경제의 문화적 특질 때문이 아니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그로 인한 신뢰의 부족에 대한 농민들의 합리적 대응인 셈이다.

하게 제도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즉 제도가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제도는 결코 신뢰를 생산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커가 신뢰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의 결과물이지만 신뢰를 생산하는 기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뢰를 생산하는 제도들이 만들어 내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진정한 의미의 신뢰인가도 의심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뢰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사회적 불확실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김용학·손재석, 1998; 박찬웅, 1999a; 야마기시, 2001; 강수택, 2003; 이재혁, 1998; 2006). 다시 말해 위험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은 신뢰라는 개념을 요구하지 않는다. 야마기시(2001: 190)가 말하는 ‘신뢰의 첫 번째 모순’은 바로 이 역설을 꼬집고 있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가족관계와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대에는 신뢰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야마기시는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 신뢰와는 구별되는 ‘안심’(assurance)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제도가 만들어 내는 신뢰는 오히려 안심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과 사회적 불확실성은 그러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상쇄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타인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비인격적’ 시장이 성립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을 움직이고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신뢰의 유형은 많은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일반적 타인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아닐 수 있다. 또한 신뢰를 만들어 내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성립 이전에 행위자들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나아가 제도가 만들어 내는 대인 신뢰는 위험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신뢰가 아니라 안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결국 제도기반 신뢰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제도가 만들어 내는 신뢰’에는 주목하지만,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기제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형태의 신뢰가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시장과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응하는지 등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원리를 가진 집단들이 어떠한 신뢰를 생산하는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어떤 집단이 어떤 신뢰를 생산하는가?

사회자본은 신뢰의 보고寶庫로 여겨진다(Putnam, 1993; 1995). 그러나 사회자본은 상황의존적인 것이어서, 어떤 사회자본이나에 따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신뢰의 유형과 효과, 범위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김상준(2002)이 지적하고 있듯이 “협동을 전제로 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적 가치 기준이나 규범의 집합”으로 사회자본을 이해했을 때, 퍼트남이 본 이탈리아 북부의 자발적 결사체와 마피아는 전혀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집단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떤 사회자본의 형태가 어떤 속성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최종렬(2004: 117)은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뢰, 호혜성, 연결망을 준거로 사회자본의 종류를 이념형적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자본 분류는 이념형적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사회자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념형적 구분은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준거로 한 구분이기 때문에 집단 자체의 구성원리와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자본과 집단의 조직원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사회집단을 해당 집단의 속성과 조직원리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사회자본의 유형과 연결시키는 기존 논의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한다.

류석춘(2002a)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에 존재하는 집단을 구분한다. 첫 번째 기준은 집단의 구성방식이 자발적인지 혹은 연고에 의한 것인지이며, 두 번째 기준은 집단의 활동목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이다. 그러나 류석춘의 집단 범주화 논의는 비영리/비정부 영역에 존재하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들을 포함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집단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인 집단의 구성방식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구분하여, 비자발적 구성방식을 연고에 의한 집단 구성방식과 등치시키고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집단 구성방식이 동시에 결합된 직장단위의 연고모임과 같은 단체들을 담아내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에 비해 김상준(2002)은 집단의 범위를 한국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총체적인 집단 범주화를 시도한다. 그의 기준은 집단의 구성원리가 귀속적(지속성, 비자발성, 폐쇄성)인가 성찰적(자발성, 개방성)인가의 여부와 집단의 목표가 영리적인가 비영리적인가의 여부, 두 가지이다. 김상준의 집단 구분은 현실적으로 존재가능한 모든 사회단체를 포괄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영리적/비영리적 목표라는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김상준의 구분에서 비영리적이라는 개념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나 NGO의 경우 이들이 전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이 추구하는 공익 역시 하나의 이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내세운 공익을 추구하는 도

구주의적 지향을 가진 시민단체나 정부를 목적을 갖지 않는 정의적 집단인 가족과 함께 묶어 비영리적이라는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한 분석이다.

이재혁(2007)은 연결망의 성격보다는 해당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를 준거로 구분한다. 그는 도구주의적 성격 즉 관계자본적 성격의 정도와 공공적 성격 즉 시민자본적 성격의 정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유형을 구분한다. 이 구분에서 높은 시민자본적 성격은 공익 추구와, 그리고 높은 관계자본적 성격은 사익 추구와 곧바로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집단의 성격을 구분하면, 이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만다. 예를 들면 단순한 뜨개질 모임, 친교 클럽, 독서 클럽은 설 곳이 없다. 즉, 퍼트남이 사회자본의 모태로 보고 있는 면대면 결사체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모두 제외되어야만 한다(Putnam, 1993; 1995). 또한 이러한 집단들은 도구적 성격(관계자본)과 공익적 성격(시민자본)이 모두 낮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와 동일한 범주로 묶이고 만다. 결국 퍼트남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로 지목했던 두 집단의 범주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대한 고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집단의 구성원리에 대한 고려이다. 즉,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생애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특정한 경험의 공유에 의해 결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게마인사프트와 게셀사프트,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귀속성과 성취성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회학 논의에서 이미 중요한 준거로 자리잡고 있다. 각각의 구성원리를 가지는 집단의 특성을 이념형적으로 비교하면 귀속적 집단은 비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자발적 집단은 개인

의 선택에 따라 구성원의 지위가 결정되는 열린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기준만으로 우리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결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클럽과 같은 풀뿌리 결사체와 마피아 조직을 구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라는 두 번째 기준이 요구된다(류석춘, 2002a; 이재혁, 2007). 그런데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어 온 공익과 사익이라는 구분은 그 실체가 모호하여 구분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익의 추구를 자임하는 단체의 활동이 실제로 공익에 맞는 활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¹⁴⁾ 뿐만 아니라, 실제 목표나 목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의 존재 이유를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완성적’(consummatory) 집단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구적’(instrumental)으로 만들어진 집단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Portes, 1998). 완성적 집단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으로 집단의 목표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반면에 도구적 집단의 경우에는 단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며, 이 목적이 개인에게 결사 참여의 동기를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도구적 집단은 다시 집단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성격에 따라 공공재의 추구하고 집합재의 추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동시에 활용하여 사회집단을 범주화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결과가 <표 2>이다.

14)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낙천낙선운동을 한 것이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표 2> 집단의 구분

		구성원리	
		귀속적	자발적
도구적	공공재 (공적 이익추구)	왕정 혹은 귀족정치	NGO(시민단체)
	집합재 (사적 이익 추구)	연고집단	기업
완성적		가족	취미모임(동호회)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앞으로 살펴볼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가장 대비되는 성격을 보여 준다. 동창회를 포함한 연고집단은 귀속성(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원리에 근거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반면, 시민단체는 자발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원리에 근거해서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두 집단의 대비되는 특성은 신뢰와 사회자본의 맥락에서 몇 가지 논쟁점을 제공한다.

우선은 연고집단의 귀속적이고 폐쇄적인 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신뢰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고집단의 폐쇄성은 필연적으로 강한 내부 연대와 신뢰를 가지는 반면 타집단에 대해서는 불신을 낳는다고 가정된다. 이에 비해 자발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약한 내부 연대와 집단 외부에 대해 신뢰를 제공한다고 가정된다. 연고집단의 귀속적이고 폐쇄적인 연결망 형태는 그 구성 밀도가 높고 또한 강한 유대로 이루어져 확장 가능성이 적은 반면, 자발적 결사체는 연결망의 크기를 고려할 때 구성 밀도가 낮고 약한 유대로 이루어져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약한 연대의 강함’을 원용한 해석임에 틀림없다(Granovetter, 1973). 그러나 다른 한편 연고집단 논쟁이 신뢰의 문제와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연고집단의 지배적인 속성이 완성적인가 도구

적인가 하는 문제 또한 논쟁거리가 된다. 앞서 살펴본 집단의 구분에서 김상준(2002)은 연고집단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1차 집단으로 분류한 반면,¹⁵⁾ 이재혁(2007)은 높은 관계자본적 성격 즉 도구적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쟁점에 대한 기준을 종합해 보면 연고집단은 그것이 폐쇄적인 동시에 도구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열(2001: 178-183) 역시 한국사회에서 연고집단이 파당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집단으로 기능해 온 맥락에 주목한다. 이재열은 인격주의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고집단 내의 결속이 정의적情誼的이고 정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어 집단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연대감이 위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다른 논문(이재열, 1998)에서도 한국의 현대사는 시민사회의 발달이 매우 미약했고 공식적 규칙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자원과 규칙을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한 강한 국가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적인 신뢰에 기반한 연고주의가 강화되면서 닫힌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파당으로 전환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재혁(1999a: 49)도 연고집단의 파당적 연줄망이 갖는 집단 내적 호혜와 사적 신뢰가 배타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타자에 대한 신뢰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게임의 룰에 대한 공적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다른 논문(이재혁, 1999b) 역시 연고집단의 성격을 집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폐쇄성으로 규정하며, 연줄망은 집단 내부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제도적 불신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15) 장윤식(2001) 역시 연고집단을 호혜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원리를 지닌 인격주의의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연고집단을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정의적이고 1차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다.

박찬웅(1999a) 또한 혈연주의, 학연주의, 지연주의, 가족주의 등과 같은 연줄망은 그 선택기준이 귀속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내부적으로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내지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는 배타성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낮추는 역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성취적, 보편적, 확장적 연결망을 통한 신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류석춘은 연고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점에서 연고집단을 비판하는 입장과 구분된다. 먼저 류석춘(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128-129)은 연고집단 내부에서는 상호 호혜에 기초한 신뢰의 원리가 작용하는 반면, 연고집단 외부에는 배제와 불신의 원리가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연고집단의 내부적 신뢰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신뢰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구식의 이분법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류석춘은 “한 개인은 여러 개의 연고집단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고 또한 연고집단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는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을 넓힐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연고집단과 대비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가입의 조건은 성취적이지만 가입 후의 집단 개념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고집단보다 더 폐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류석춘은 연고집단에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연고집단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면 자발적 결사체는 오히려 그 경계가 폐쇄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다양한 결사체 속에서도 전통적인 연고관계가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류석춘·장미혜, 2002a).¹⁶⁾ 이것은 연고집단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16) 김보경(2005) 역시 유석춘과 유사하게 연고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유교의 문중공동체를 사회지본의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연고집단이 가족과 사회를 연결해 주

대립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전자의 입장과 대조적이다.¹⁷⁾ 류석춘은 이러한 시각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으로 연고집단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는 서로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적 논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신뢰의 측면에서 두 집단이 만들어 내는 연결망 및 신뢰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두 집단이 보여 주는 연결망의 특성을 통계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는 연고집단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 즉 폐쇄적이고 귀속적인 연고집단은 강한 연결망의 속성을 가지는 반면, 개방적이고 성취적인 자발적 결사체는 약한 연결망의 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이다. 다음에는 두 집단의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두 집단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성격이 어떠한 특성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논지가 맞다면, 연고집단의 강한 배경적 기대와 내집단 신뢰는 타집단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면서 구성원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도구적 속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반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의 구성원은 높은 수준의 일반적 신뢰를 보이는 동시에 특정한 관계에 배태된 사적 신뢰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선택된 집단은 둘이다. 하나는 연고집단을 대표하는 고교 동창회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환경단체이다.

는 중간 집단적 속성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자본이라 평가한다.

- 17) 이는 그의 다른 연구(류석춘, 2002b: 76; 류석춘·김용민, 2002; 류석춘·왕혜숙, 2006)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시민단체의 자원동원과정도 이러한 연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참여 혹은 시민단체 활동가의 충원방식에 연고에 의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송호근(1998)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III.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통계적 비교: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

1. 조사 방법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사회자본 측정은 동창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 1백 부와 심층면접 다섯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두 집단을 대표하는 단체로는 ‘중앙65교우회’와 ‘환경운동연합’을 각각 선택하였다. 중앙65교우회¹⁸⁾는 중앙고등학교 제65회 졸업생(1974년 2월 졸업)으로 구성된 동창회이다. 1명의 회장, 2명의 부회장, 1명의 총무, 20명 이내의 간사, 1명의 감사를 포함하여 총 502명으로 구성된 중앙65교우회는 1년에 한 번의 총회(매년 6월 5일)와 연말모임(12월)을 정기적·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교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회보발간, 장학사업 등 모교 발전과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 회원들 간의 사회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유지해 오고 있다.

1993년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우며 시민단체로 출범한 환경운동연합¹⁹⁾은 그 전신으로 1982년 설립된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이다.²⁰⁾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등 환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을 중심으로 국내의 다른 시민단체들은 물론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0년 8월 현재 46개 지역조직과 7만 3천여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시민단체이기도 하다. 여타 시민단체들의 경우 30대 중반의 남성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8) 중앙교우회 홈페이지(<http://gyewoo.org>)와 중앙65교우회 홈페이지(http://gyewoo.org/cafe_gyewoo65) 참고

19)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kfem.or.kr 참고

20) ‘사회자본’과 ‘시간’의 관계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자본 측정의 전제 사항으로서 역사가 오래된 환경운동연합을 선택하였다.

것에 비해 환경운동연합은 주부를 포함한 여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조직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다양한 소모임 참여와 상호대면을 통해 사회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 2004년 9월부터 사전조사(pre-test)를 네 차례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문지와 심층면접 문항을 가지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이다. 물론 계량적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위해 두 단체에는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²¹⁾ 중앙65교우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연례행사인 송년회에 참석하여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송년회 참석자 80명을 대상으로 56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나머지 44개의 설문지는 회원명부에 기초한 개별방문과 우편조사 및 이메일 조사 등의 2차 조사를 통해 추가로 수집되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의 표본은 사직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중앙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상근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소모임 활동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²²⁾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상근자가 다른 시민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근자가 설문지의 3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²³⁾ 두 단체 모두 최종적으로 1백 명의 응답을 각각 확보하였다. 설문지는 자아중심적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되었으

21) 이 조사는 2003년부터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한국의 사회자본: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의 일환이다. 이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이 과제의 2차년도 작업 “현대 한국의 인간관계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8개 집단(어촌계, 향우회, 동창회,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중친회, 각각 100명 목표) 가운데 동창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 및 면접 조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내용은 2008년 8월 출판예정인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참조.

22) 중앙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의 중심이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회원명부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회원명부를 구한다 하더라도 회비만 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의 측정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Putnam, 1995; Newton, 1997).

23) 상근자의 경우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²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연결망, 호혜성, 신뢰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문항 4~문항 14).

연결망은 관계의 빈도, 지속성, 밀도, 교환자원의 크기, 관계의 중복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다. 개인 간 관계의 친근성을 나타내는 ‘빈도’는 지난 일 년 동안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이 서로 접촉한 횟수를 통해 측정하였다(문항 8). ‘지속성’은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을 일 년 단위로 측정하였다(문항 3-11). ‘밀도’는 응답자가 표시한 개인들이 그들끼리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를 계량화한 것으로, 연결이 가능한 관계의 수에 대하여 실제로 연결된 관계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문항 4). ‘교환자원의 크기’는 응답자가 연결된 사람들과 지난 일 년 사이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원(문항 6)과, 상대방에게 준 자원(문항 7)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였다.²⁵⁾ 마지막으로 ‘관계의 중복성’은 응답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각각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하여, 확인된 관계 수의 평균을 구하였다(문항 3-2). 연결망에 등장하는 개인들 사이에 여러 종류의 관계가 중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보다 친밀하고 강한 유대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호혜성의 유형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균형 잡힌 호혜성’ 그리고 ‘부정적인 호혜성’으로 나누었다(최종렬, 2004). 이를 확인하는 문항은 ‘이해 관계의 방향’(문항 9),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문항 10),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문항 11)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²⁶⁾ 마지막으로

24) 자아중심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이란 응답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가까운 사람을 순서대로 밝히도록 하여 드러나는 연결망을 말한다(김용학, 2004).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사)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선택하여 응답한 정보에 따라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25) 연결망을 통해서 교환되는 자원은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보, 용역, 위세, 재화, 위로, 평판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김용학, 2004).

신뢰의 유형은 ‘불신’과 ‘구성적 기대’ 그리고 ‘배경적 기대’로 구분하였다(최종렬, 2004).²⁷⁾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적인 이해관계(문항 12)와 비물질적인 이해관계(문항 13)에 관한 구체적인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대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문항 14)를 통해서도 신뢰의 유형을 파악하였다.²⁸⁾

2. 분석 결과

<표 3>은 연결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평균(표준편차)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이 어떤 특성과 유형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특성은 빈도와 지속성이다. 빈도의 경우 동창회(83.5)에 비해 시민단체(109.2)가 높다. 동창회는 종친회(68.2), 향우회(87.1) 등의 연고집단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빈도를 보여 준다. 이는 연고집단이 과거에 공유된 경험을 유지하는 1차 집단의 속성을 갖는 반면, 시민단체는 일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빈번히 만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2차 집단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²⁹⁾

26) 세 문항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호혜성에 가깝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에 가깝다고 보았다. 중간 값은 균형 잡힌 호혜성을 나타낸다.

27) 익명의 논평자는 이 논문이 사회적 불확실성 즉 위험을 전제로 한 사회학적 신뢰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분석을 위한 설문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신뢰의 개념을 측정한 세 문항(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가운데 두 문항(문항 12 및 문항 13)이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구성된 질문임을 밝힌다.

28) 세 문항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불신에 가깝고, 점수가 높을수록 배경적 기대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중간 값은 구성적 기대를 의미한다.

29) 한편 빈도의 표준편차에서 시민단체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는데, 이는 상근간사 30명과 일반회원 70명이 설문에 동시에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는 상근간사와 일반회원 간의 연결망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내부에 이분화된 신뢰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장수찬, 2004a).

<표 3> 연결망 측정 항목의 집단별 비교(평균, 표준편차)

	중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시민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3	인력시장 N=100	어촌계 N=102	전체 N=716
빈도	68.22 (31.69)	83.51 (31.31)	87.07 (28.14)	109.21 (36.88)	114.05 (29.24)	40.62 (28.64)	110.66 (28.45)	115.25 (31.69)	94.79 (38.42)
지속성	35.00 (16.13)	30.53 (6.47)	29.20 (14.79)	5.48 (5.19)	6.53 (6.65)	6.89 (11.85)	11.04 (8.63)	53.85 (12.04)	21.94 (19.81)
밀도	0.90 (0.16)	0.85 (0.19)	0.76 (0.20)	0.81 (0.20)	0.87 (0.17)	0.83 (0.22)	0.70 (0.19)	0.99 (0.03)	0.84 (0.19)
교환자원 크기	11.80 (8.32)	11.84 (9.15)	12.33 (9.39)	11.72 (8.05)	13.67 (10.14)	5.72 (4.20)	17.93 (13.21)	21.33 (8.08)	13.73 (10.22)
관계의 중복성	1.58 (0.79)	1.34 (0.41)	2.12 (0.66)	1.61 (0.48)	1.23 (0.41)	1.23 (0.45)	1.35 (0.52)	2.91 (0.65)	1.68 (0.78)

또한 지속성에서도 두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조사대상 동창회(30.5)의 특성상 알고 지낸 기간을 묻는 질문에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5.5)의 지속성은 동창회는 물론 다른 단체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편 관계의 중복성에서는 시민단체(1.6)가 동창회(1.3)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이 동창회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간에 중첩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결망을 측정하는 나머지 항목 즉 밀도 및 교환자원의 크기에서는 두 집단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³⁰⁾

이상의 분석을 표준화시켜 종합한 결과는 <표 6>의 첫 번째 열인 ‘표준화된 연결망’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평균(0)을 기준으로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지극히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시켜 합한 결과를 보면 동창회(-0.30)의 연결망은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

30) 이 논문에서 제시된 동창회와 시민단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모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박소연(2005) 참조.

으로 약한 반면, 시민단체의 연결망(0.25)은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호혜성에 대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자. <표 4>에는 호혜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척도들은 값이 클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값이 작을수록 부정적 호혜성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값은 물론 균형 잡힌 호혜성을 의미한다.

<표 4> 호혜성 측정 항목의 집단별 비교(평균, 표준편차)

	종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시민 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1	인력 시장 N=100	어촌계 N=102	전체 N=716
이해관계 방향성	1.19 (2.31)	0.37 (2.17)	0.39 (2.55)	0.82 (2.72)	1.78 (3.25)	0.23 (1.52)	0.25 (2.64)	5.00 (4.57)	1.33 (3.31)
보답의 즉각성	2.05 (6.15)	4.41 (5.53)	3.60 (6.87)	2.04 (5.95)	4.58 (5.97)	0.14 (3.91)	2.35 (6.46)	6.52 (5.04)	3.40 (6.07)
보답의 등가성	2.85 (5.38)	5.02 (4.62)	5.05 (5.48)	2.97 (5.16)	5.91 (4.80)	1.39 (3.11)	3.54 (4.77)	6.61 (4.73)	4.35 (5.05)

첫 번째 항목인 이해관계의 방향성에 있어서 시민단체(0.82)가 동창회(0.37)보다 높은 값을 보여 준다. 이는 시민단체의 응답자가 동창회 응답자보다 상대방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두 번째 항목인 보답의 즉각성과 세 번째 항목인 보답의 등가성에 있어서는 동창회(4.41 및 5.02)가 시민단체(2.04 및 2.97)에 비해 높은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 동창회의 응답자가 시민단체의 응답자보다 즉각적이고 등가적인 보답에 대한 기대가 낮다. 한편, 세 항목을 표준화시켜 종합한 결과는 <표 6>의 두 번째 열인 ‘표준화된 호혜성’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평균(0)과 비교하여 동창회(0.06)는 전체 평균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시민단체(-0.28)는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창회는 호혜성 척도에서 중간 값이 의미하는 균형 잡힌 호혜성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 주며,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호혜성과 균형 잡힌 호혜성 사이에 위치하는 값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뢰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자. <표 5>에는 신뢰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척도들은 값이 클수록 배경적 기대가 높음을 의미하며, 값이 작을수록 불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값은 물론 구성적 기대를 의미한다.

<표 5> 신뢰 측정 항목의 집단별 비교(평균, 표준편차)

	중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시민 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1	인력 시장 N=100	어촌계 N=102	전체 N=716
물질적 신뢰	5.24 (4.17)	7.49 (3.15)	6.67 (4.29)	4.21 (4.86)	5.95 (4.23)	1.93 (2.59)	4.66 (4.71)	7.17 (3.93)	5.57 (4.39)
비물질적 신뢰	3.02 (4.74)	2.47 (4.21)	3.07 (5.06)	2.45 (4.13)	2.86 (5.28)	0.21 (3.26)	1.14 (5.42)	4.89 (5.08)	2.58 (4.89)
타자 지향성	5.02 (4.66)	7.20 (3.81)	5.12 (5.02)	3.72 (5.33)	4.76 (5.82)	2.56 (3.75)	5.68 (5.55)	7.75 (3.55)	4.35 (5.05)

신뢰를 측정한 첫 번째 항목인 물질적 신뢰는 동창회(7.49)가 시민단체(4.21)보다 높다. 이는 시민단체의 응답자들이 동창회의 응답자들에 비해 물질적 기대가 깨졌을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항목인 비물질적 신뢰에서는 동창회(2.47)와 시민단체(2.45)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물질적 신뢰가 깨진 경우 두 단체의 응답자가 엇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타자지향성 항목

에서는 동창회(7.20)가 시민단체(3.7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값을 보여 준다. 이는 동창회의 응답자들이 시민단체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에 관한 세 항목을 표준화시켜 종합한 결과는 <표 6>의 세 번째 열인 ‘표준화된 신뢰’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평균(0)과 비교할 때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표준화된 신뢰는 정반대의 값을 가진다. 즉 동창회(0.37)는 양의 방향에 그리고 시민단체(-0.31)는 음의 방향에 위치한다. 이를 해석하면 동창회가 보여 주는 값은 배경적 기대를 의미하는 양의 값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값이 그리 크지 않아 배경적 기대와 구성적 기대의 중간 수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불신을 의미하는 음의 값이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불신과 구성적 기대의 중간 수준의 신뢰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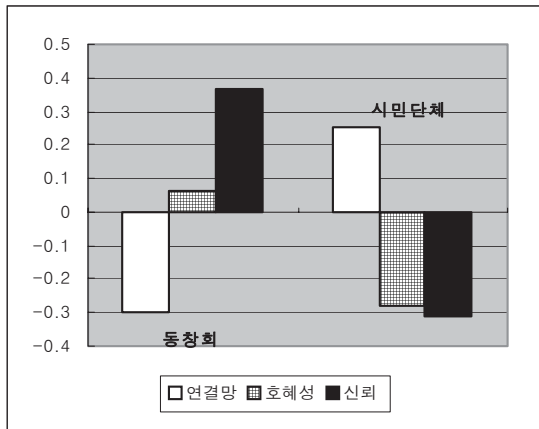
<표 6> 연결망, 호혜성, 신뢰의 표준화된 값 비교:
여덟 개 집단(평균, 표준편차)

집단	종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시민 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1	인력 시장 N=100	어촌계 N=102	전체 N=716
표준화된 연결망	-0.61 (0.79)	-0.30 (0.82)	-0.20 (0.73)	0.25 (0.93)	0.45 (0.70)	-1.40 (0.70)	0.43 (0.78)	0.71 (0.82)	0.00 (1.00)
표준화된 호혜성	-0.26 (0.94)	0.06 (0.84)	0.00 (1.03)	-0.28 (0.94)	0.28 (0.91)	-0.64 (0.60)	-0.26 (0.95)	0.79 (1.00)	0.00 (1.00)
표준화된 신뢰	-0.02 (1.01)	0.37 (0.80)	0.14 (0.90)	-0.31 (1.04)	0.01 (0.96)	-0.87 (0.55)	-0.20 (1.03)	0.63 (0.87)	0.00 (1.00)

<그림 2>는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이 그림은 <표 6>에 제시된 여덟 개 집단이 보여 주는 사회자본

의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연결망, 호혜성, 신뢰의 표준화된 평균값들 가운데 동창회와 시민단체에 관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연결망, 호혜성, 신뢰의 표준화된 값 비교:
동창회와 시민단체



이 그림을 보면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각 요소별로 상반된 특성을 보여 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연결망의 차원에서 동창회는 약한 연대, 시민단체는 강한 연대에 각각 가깝게 나타난다. 그러나 호혜성의 차원을 비교하면, 동창회는 균형 잡힌 호혜성에 가까운 반면 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호혜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차원을 비교하면 동창회는 배경적 기대라는 특성을 보여 주고 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신에 가까운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폐쇄적이고 귀속적인 연고집단은 강한 연결망의 속성을 가지는 반면, 개방적이고 성취적인 자발적 결사체는 약한 연결망

의 특성을 보인다는 연고집단 비판론자들의 주장(김용학·손재석, 1998; 이재열, 2001; 이재혁, 1998a; 1998b)과 대치된다. 또한 호혜성의 경우 동창회는 강한 일반화된 호혜성을 공유할 것이라는 예상(최종렬, 2004)과 달리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균형 잡힌 호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자들 사이에 어떤 유형의 호혜성이 지배적일지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가 이렇다 할 가정이나 예측을 제시한 바는 없지만, 우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단체 참여자들 사이에는 부정적인 호혜성 유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차원을 보면 동창회가 서로의 배경적 기대에 기초를 두고 높은 대인 신뢰를 보여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Zucker 1986)가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신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시민단체가 항상 높은 구성적 기대에 기초를 둔 신뢰(Putnam, 1993; 후쿠야마, 1996; 유재원, 2000; 장수찬, 2004a; 2004b)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신의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결망의 속성이나 집단의 구성원리만으로 사회자본의 효과와 기능을 예단할 수 없다는 최근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이재혁, 2006; 2007).³¹⁾ 동창회의 사례는 약한 연대와 집단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배경적 기대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사례는 강한 연대와 불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가 강한 연대의 속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속성이 귀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방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시민단

31) 이재혁(2006; 2007)은 보른스코프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척도인 신뢰, 연결망적 행위, 호혜성의 규범 세 가지 가운데 사회적 신뢰 요소만이 성장이나 삶의 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연결망 결사의 정도와 형태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연결망은 그것이 작동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 ‘자본’도 사회적 ‘반자본’도 될 수 있는 양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체는 폐쇄적 내집단 신뢰가 아니라 일반적 신뢰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반면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은 비록 약한 연대를 가지지만 그것의 구성원리가 귀속적인 폐쇄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결망 외부에 있는 타인들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강한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신뢰를 넘어서 일반적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의 개방성과 자발성 때문인가? 그리고 실제 그들은 개방성에 기초를 둔 일반적 신뢰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또한 연고집단은 약한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내집단 신뢰를 생산하는 까닭이 그것의 귀속적, 폐쇄적 특성 때문인가? 실제 연고집단이 강한 내집단 신뢰를 공유하며, 그것은 집단의 귀속적, 폐쇄적 특성 때문인가? 이제부터는 두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IV. 면접조사 결과: 신뢰의 생산

1. 연고집단은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상징인가?

앞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여덟 개의 대표적인 집단들에 대한 일련의 비교연구의 일환이다. 전통적인 연고의 속성을 보이는 다른 집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집단의 강한 내부적 통합성이 개인에게 집단의 상징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압력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거시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최우영, 2006a; 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2006; 정병은, 2007; 류석춘·왕혜숙, 2008). 이들은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연고적 특성을 지닌 향우회, 종친회, 어촌계가 집단의 규범을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공공재의 생산이라는 집

합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기주의적 행동과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동창회는 연고적 속성의 집단들 가운데 기억과 재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집단이다. 왜냐하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상징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된 동창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조사대상 동창회의 이러한 특성은 장기적이고 집합적인 이해에 대한 고려 즉 일반화된 호혜성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다른 연고집단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난다. 물론 다른 연고집단과 비교하여 공통의 상징에 대한 발전적이고 계승적인 재현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학창시절이라는 경험에 기초한 집합적 재현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후배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졸업한 지 30년이 된 동창들이 집합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실체는 명문 사학의 전통이나 학풍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보냈던 인생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이다.

개인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더 미친 것은 동창들이구요. 형제 외에 친척 사촌들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거나 걱정한 적은 개인적으로 없었던 거 같아요. 고교 친구들이랑은 개인적인 고민을, 훨씬 더 많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죠.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 훨씬 더 많이 공유를 하죠…… 동창회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이고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를 자주 만나든 자주 만나지 않든 간에, 내가 존재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얻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일단 동창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가장 순수한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총무 오○○).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 만남은 어른들 되서 만나는 거와 다르지. 막 상소리도 할 수 있고 술 먹다가 어릴 때 친구니까 원래 친구다 그런 맘이 있는 거죠 (前회장 이○○).

누구나 단체에 귀속감 같은 것을 바라잖아요. 게다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그동안 거쳐 왔던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은 조금 다르죠. 다른 단체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지만 어렸을 때 친구니까 동창들은 성장을 같이했기 때문에 동향친구고. 그러니까 개네들이 마음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만나면 반갑고,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앉아서 옛날 일들, 물론 지금은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지만, 만나면 “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그게 30, 40, 50, 60 먹어도 그거는 그대로 갈 거 같아요(일반회원 박○○).

앞에 제시한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졸업 이후 사회에서 맺게 되는 이해타산적 관계와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며 순수하고 정의적인 관계로 이상화하고, 이러한 상징을 공유한다. 이들에게 동창이란 오랜만에 만나도 혹은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항상 심리적인 위안과 정서적 안정을 주는 상대이다. 특히 때 묻지 않은 유년시절을 함께 보낸 정서적 유대에 대한 의미부여는 응답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이들의 졸업 30주년 행사의 내용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에 대한 집합적 재현의 내용을 여실히 보여 준다.

1시부터 모여서 대운동장에서 6시까지 그룹을 나눠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저쪽에서는 골프도 하고 신나게 놀 때 고등학교 생각도 하고 신나게 놀고 그 앞에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다시 와서 8시 반에 해산하는 거야(부회장 정○○).

이들은 모교의 운동장에 모여 마치 학창시절처럼 축구, 농구를 즐긴다. 그렇게 한껏 땀을 흘리고 나서 모두 함께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해산을 하며 기념행사를 마친다. 명문 사립의 전통이나 학풍, 소위 출세한 동기의 인사말, 모교가 배출한 명망인의 방문과 같은 전시적 의례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들이 집합적으로 기억하고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보낸 순수했던 유년시절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일을 미루고서라도 상대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경조사, 비공식적인 술자리나 고민 들어주기 등에 대한 의무감은 물론 동창이 불우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자신보다 힘든 여건에 처하게 되면 더 나은 입장에 있는 동기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는 유일한 공식 행사인데, 이때 회비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기들 모두가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동창회의 임원들은 대부분이 등을 떠밀리다시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임원이라는 곳은 일을 맡는다. 즉 나보다 다른 구성원을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규범의 실천 없이 동창회라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제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이 있죠. 동창회가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친구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서 버리면 안타깝죠(총무 오○○).

그게 할 생각이 없으면 필요 없는 일이지만, 그게 좋은 일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한 거

라고(부회장 정○○).

얼마씩 회비를 낸다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도 동창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능력 없는 친구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동창회를 만들자 해서 그나마 능력 있을 때 기금을 만드는 게 낫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라. 없으면 안 내도 좋다. 충분하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2,30년 더 유지할 수 있게 기금을 만들어서 동창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만날 때 호텔에서 만나게 되면 일인당 4,5만 원씩 내거든요. 그것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총무 오○○).

근데 그걸 알게 도와주면 달갑지가 않거든. 우리가 동창회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게끔 조금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나중에 졸업 40주년 이런 걸 할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친구 아니야. 내가 있어야 만나서 술도 사 주고 그러지. 왜냐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진짜 만 원, 이만 원 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부회장 정○○).

실제 이들 간에 이해타산적인 행동 예컨대 큰 돈을 빌린다면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완성적 차원에 의식적으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정의적, 정서적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는 이들의 관계가 계산적, 이해타산적, 도구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으로 드러난다. 이들이 공유하는 순수한 시절의 친구관계라는 상징은 이익 자체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모호한 규범이 가장 확실한 행위의 원칙이다.

사실 동창이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같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동창들끼리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같이하면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총무 오○○).

취직 같은 거는 세상이 맑아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취직에 관한 정보나 그런 건 괜찮겠지만 상대방 지위에 부담이 되는 그런 거는 안하는 게 서로 예의지. 차라리 돈을 빌려 주는 게 낫지. 명예나 지위에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서로가 조심해야지. 그건 부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일반회원 박○○).

아까처럼 돈을 꾸 준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일부러 안 꾸 주지. 돈이라는 게 절대 꾸 주는 게 아니야. 친구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안 꾸 주는 거야. 안 꾸주는 게 나은 거지(부회장 정○○).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진술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금기가 그들이 겉으로 말하듯이 그들의 관계가 진정 이상적으로 정의적이고 정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은 아니다. 실제 이들 간에 돈 거래가 금기시되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에게 완성적 행동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신뢰의 부족에 대처하는 도덕적 처방이기 때문이다.

친구라는 게 같은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동창이라든가. 사실 그거 말고 친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또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사귀다고 하더라도 진심되게 마음을 주고받지는 않게 되죠. 동창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 친구가 동창 사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렇게 신뢰가 생기는 거죠. 동창들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총무 오○○).

동창회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내가 중앙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태생적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강하효(총무 오○○).

이들의 진술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동창회 구성원들은 강한 내집단 신뢰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언술은 친구나 동창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부터 알아왔던 정 때문에 또한 동창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들은 공통의 기억에 기초를 둔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는 것도 사실이다. 계량적 분석 결과에서 이들이 배경적 기대에 기초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신뢰는 함께 순수한 시절을 보낸 과거와 30년간 알고 지내 온 경험에 기초한 과정 기반 신뢰와 동창이라는 집단적 특성에 근거한 특성기반 신뢰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동창이라는 집단의 귀속적, 영속적 멤버십은 신뢰의 담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서로가 모두를 알고 있는 연결망의 닫힘(closure)이 비도덕적인 부정행위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연결망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동창회는 약한 연결망의 속성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은 심층면접에 응한 구성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임원직에 있는 회원은 동창회가 강제성을 띠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들의 참여와 관심을 장려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가 힘들다는 장애를 토로한다. 따라서 연구집단의 귀속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성은 오히려 집단의 연결망을 약한 형태로 지속시키는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습득한 멤버십은 생애과정을 통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부담 없이도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귀속적이고 폐쇄적이지만 약한 연결망을 공유하는 동창회 집단은 서로 간의 신뢰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지만 실제 생애과정을 통해 빈번하게 접촉하며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신뢰를 쌓은 경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간에 신뢰가 약하게나마 존재한다면, 그것은 5백 명에 이르는 동창들 가운데 그나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접촉을 유지해 온 소수에 대한 과정 기반적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창 일반에 대해서는 그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에 설마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지한 약한 특성 기반적 신뢰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신뢰라기보다는 의심이 유보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³²⁾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조건인 신뢰 없이 30년 동안 동창회라는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도록 요구되는 강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사적인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관계에 개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관계 즉 사회자본이 도구적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고 서로에게 정서적 위로와 안정을 제공하는 완성적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자본의 완성적 성격은 실제 엄밀한 의미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교환이나 거래행위가 이들 관계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혹시라도 동창들끼리의 이익 교환이나 거래가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이어져 신뢰가 깨지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역할을 한다.^{류석}

32) 최종렬(2004)은 Garfinkel(1963)의 정의를 받아들여 ‘의심의 유보’를 신뢰로 등치시킨다. 그러나 이 글은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의심의 유보와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의심의 유보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신뢰’ 개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만, 그것이 부재한 경우 우리는 신뢰 대신 ‘의심의 부재’ 또는 야마기시(2001)의 ‘안심’으로 개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인류학적 신뢰의 개념과 사회학적 신뢰의 개념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 논문은 후자의 개념 즉 사회적 불확실성의 개념이 전제된 사회학적 신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춘·왕혜숙, 2008).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공동체 자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더욱 근본적인 위기는 동창에게 당할 수 있는 사기나 부정행위가 아니다. 도구적 거래나 교환의 요구가 그들 사이에 제기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는 그들의 약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던 “의심의 유보”가 파괴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관계가 사회적 불확실성과 위협을 공유할 정도로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 역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국면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래서 서로에게 부담이 큰 부탁을 하는 것을 꺼린다. 체면과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절당했을 때(대부분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자신들의 이상화된 상징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원칙에 대한 요구는 의심을 계속 유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도구적 교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위기 즉 공동체 자체의 와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도덕적 해결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연결망의 형태나 조직의 구성원리만으로 사회자본의 효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은 폐쇄성과 귀속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강한 내집단 신뢰를 형성할 것이라는 연고집단 비판론(김용학·손재석, 1998; 박찬웅, 1999a; 이재열, 2001; 이재혁, 1998; 1999a; 2006)이 제기한 가설은 현실과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의 연결망은 귀속적 특성으로 인해 너무 약하며 이들의 신뢰는 너무나 얇기만 하다. 그래서 이 약한 연결망이라도 유지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자신들의 관계가 더욱 정의적이고 정서적인 공동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익 자체에 대한 담론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실제 신뢰하는 관계인가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유보시킨다. 결국 서로에 대해 일반화된 호혜성을 내면화하려는 노력은 신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도덕적 처방인 셈이다.

2. 시민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가?

시민단체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일반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집단으로 평가된다.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결사체는 일반적 신뢰의 상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이재혁, 1998; 1999a; 2006). 신뢰를 결사의 결과로 보든 아니면 결사를 신뢰의 결과로 보든 둘 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Putnam 1993; Cohen, 1999; 강수택, 2003; 이선미, 2004b).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구성원 공동의 목표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집단 구성원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역기능을 방지하며,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자본으로 평가된다(김상준, 2002; 이재혁, 2007). 여기서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면접조사 자료를 통해 과연 그들이 공익 추구의 과정에서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내는 개방적 사회자본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환경단체의 참여자라는 차원에서 이들 모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만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극적 참여를 보이는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 참여 형태를 보이는 반면, 단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적극적 회원(core group)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기까지 또 다른 기제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극적 참여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몸으로 뛰는 것 그런 건 못하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회비를 내서 자연을 지킬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했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도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환경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대의원 총회가 있다 그래서 가서 표결도 했고 따로 맡는 거는 잘 못하니까 가끔 한 번씩 총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번 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거의 활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회원이죠. 뭐 회비만 내는. 인터넷이나 그런 거로 오는 메일은 꼬박꼬박 잘 체크하고 있지요. 인터넷 지부서 활동이 있거나 소식지나 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매달 보내지는 ‘함께 사는 삶’이라는 책자나 그런 거는 꼬박꼬박 열심히 구독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내 주는 것은 열심히 보고, 또 신문도 접하고(일반회원 김○○).

일반회원 김○○의 경우 분명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스스로를 ‘불성실한 회원’으로 여길 정도로, 시간이나 직장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소모임이나 집회 등의 단체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회비를 내고, 소식지를 받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가 있을 때에나 회원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시민단체 사무실 가까이에서 일하기 때문에 빈번이 상근자들과 대면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촉이 곧바로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김○○은 다른 회원들이나 상근 간사들과의 지속적인 면대면 접촉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소극적 역할이 나름대로 시민단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일반회원의 올바른 몫이라고 정당화한다.

다른 데서도 일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비영리단체는 제일 문제가 비용의 자립도거든요. 재정의 자립이 안 되면 외부의 간섭을 받

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런 부분은 일반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자기 생업이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걸로 작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일반회원의 몫이 아닐까 싶네요(일반회원 김○○).

그렇다면 일반회원 김○○가 환경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기대와 신뢰 때문인가? 즉 자신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회비와 비록 소극적이거나 참여하여 행사하는 의사결정권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활동으로 이어지리라는 신뢰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그의 결사참여는 환경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공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활동방식에 의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단체에서 보내 주는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는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소식지를 받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소식이 단체의 예산사용 현황일 정도로 단체의 제도적 운영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이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 회원의 참여가 제도기반적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소극적이지만 참여를 지탱해 주는 신뢰는 분명 제도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기반 신뢰에 기초를 두고 참여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른 취미활동이나 동창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하니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좀 더 잘 잡혀져 있다는 거…… 책자가 매달 나오는데 매달 제일 뒤에 보면 월별 예산 쓴 게 나와요. 그런 건 끊임없이 봐요. 또 제 전공이 회계학이어서 그 쪽 일을 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건 보죠(일반회원 김○○).

뉴튼(Newton, 1997)은 회비만 내는 조직은 외부효과인 다원적 민주주의에는 공헌할 수 있어도 내부효과인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퍼트남(Putnam, 1995)이 회비만 내고 소식지만 받아 보는 전국적 단위의 자발적 결사체들의 증가를 사회자본의 형성과 발전의 지표로 보는 입장을 기각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탄식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극적 회원 김○○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도에 기반한 신뢰는 자발적이지만 낮은 수준의 참여 그 이상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적극적 참여를 하는 회원은 어떠한가? 우선 이들이 어떠한 동기로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 두 사례는 중앙환경연합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번역 소모임의 활동가 한 사람 및 환경연합 산하의 ○○구區 개인택시 사업자들 모임인 생활환경실천단 단장의 진술이다.

제가 UNEP 라고 시민단체는 아니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 쪽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장 빈번하게 연락하는 회원에 대한 질문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린허브에서 처음 만났고, 다른 한 명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서○○).

우리 ○○구에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가 여럿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이쪽에 우리 환경에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나름대로 친한 사람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3년 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쪽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환경의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내가 환경(환경연합)에 있으니 괜찮더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늘

항상 각 지역에 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소 휴게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월례회의 공고문을 붙여요. 이때 회의의 주요 안전도 삽입을 시켜요. 그런 부분을 놓고, 또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벌써 8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구 내에서는 이는 사람이 80,90%가 되고, 거의 인맥 쪽으로 들어오죠(송○○).

적극적 참여자 서○○와 송○○의 진술은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이들의 진술이 자발적 결사체의 연구적 동원방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서○○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설득하여 시민단체에 가입시켰으며, 이 외에도 같은 대학 출신 회원과는 다른 회원들보다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송○○의 경우는 같은 지역, 같은 직업을 공유하는 즉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연구적 충원과 동원은 다른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송호근, 1998; 류석춘·장미혜, 2002a; 류석춘·김용민, 2002; 류석춘, 2002a; 2002b: 76; 핫포리, 2007; 류석춘·왕혜숙, 2006; 2008). 대부분의 문헌들은 시민단체의 연구적 동원방식 현상을 한국적 특수성 또는 변형/왜곡된 시민사회의 모습으로 진단한다(장수찬, 2004b). 그러나 이는 한국적 특수성의 문제이기보다 신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적극적 참여자들은 단체 내에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단체활동이라는 일종의 협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구성원 간에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번역 소모임에서 잘 드러난다.

번역 소모임은 해외의 환경에 대한 소식을 번역하여 환경연합의 소식지와 인터넷에 게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모임보다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맡은

번역 업무를 제대로 또 정해진 시간에 완수해야 하는 능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환경 연합이라는 단체 전체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소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나 모임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빈도에 따라 번역 참여율을 조정하는 여과기제(filtering mechanism)를 사용한다. 즉 상대방의 책임감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구축된 구성원을 중심으로 일을 배당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소모임의 사례에서 본 연고적 동원방식과 신뢰의 여과기제는 시민단체가 과연 타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에 근거한 개방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결사체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시민단체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적 신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아니라 면대면 접촉을 통한 배경적 기대 그리고 과정기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강점으로 지적되는 일반적 신뢰에 터한 개방성과 자발성은 오히려 협업의 비능률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방성과 자발성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시민단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미묘한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주목해 보도록 한다.

특히나 선거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력 중에 “환경연합 회원이다, 환경 연합 어디어디 간부다” 이런 걸 넣기 위해 회원 가입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맡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

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상근자 이○○).

환경연합을 사칭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테구요. 그런 건 당연히 제재가 되는 거고. 예전에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수자원공사가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수자원공사가 다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수자원공사가 환경연합에 다 가입을 했어요. 저희가 조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는 환경연합과 대표적으로 싸우는 단체인데, 거기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돈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앙이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깐 상관이 없지만 지역조직은 회원이 100명, 200명 되는 데가 있거든요. 100명, 200명 되는 그 조직에 수자원공사 직원 한 50명 정도가 집단으로 가입하고 총회나 그럴 때 집단적으로 50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환경연합 위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2003년인가 2004년 초에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회원 가입하는 것을 다 만류하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100명, 200명 되는 지역조직에 와서 집단적으로 가입한 하나의 세력이 그걸 바꾸고 한다면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니깐요(상근자 이○○).

환경연합의 상근자 이○○의 진술은 자발적 결사체의 공공성과 개방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환경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수자원 보존 즉 ‘댐건설 반대’라는 ‘공익’과 수자원공사라는 국가기구가 추구하는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즉 ‘댐건설 찬성’이라는 ‘공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공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³³⁾ 나아가서 환경연합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두고 과연 시민단체가 개방

33) 사실 이 대목은 ‘公’과 ‘私’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일부 집단의 관심과 이해에 불과하며,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와 같은 전체의 이익은 추상 수준이 매우 높은 개념이다. 특정한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특정한 집단의 기준에서는 배타적인 사적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한다.

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쟁점에 모두 시민단체에 불리(?)한 판단을 한다면 시민단체는 개방적이지도 또한 공익을 추구하지도 않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이익집단일 뿐이다.

물론 위의 사례는 특정 단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상대 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에 대항하여 상대 단체 역시 자신의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 개방적 참여를 제한한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환경이라는 포괄적인 관심 아래 다양한 관점과 개별적 이익을 가진 개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의 개방적 특성은 같은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익이나 관심의 상충과 갈등이 언제라도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자본이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당연히 기여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특성은 바로 그 개방성 때문에 신뢰의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방적 구조와 자발적 참여라는 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응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결국 폐쇄적인 적극적 참여자 그룹과 개방적인 소극적 참여자 그룹이라는 이분화된 내부 구조로 이어진다. 시민단체가 과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자발적 결사의 상징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V. 맺는 말

폐쇄성의 문제는 연고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집단 가입과 구성의 원칙이 자발성에 기초를 둔 시민단체 역시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참여의 제약과 폐쇄적 운영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한 단체의 목표

에 반하는 사람들의 참여에는 매우 폐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계량적 분석 결과가 보여 주듯이 연결망의 형태와 조직의 구성원리만으로 그 집단의 사회자본이 만들어 내는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동창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폐쇄성과 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고 집단의 진정한 고민은 강한 내집단 신뢰와 그 결과 나타난 외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약한 연결망과 깨지기 쉬운 신뢰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나마 유지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규범에 호소하고 있다. 이는 왜 동창회라는 연고집단이 비도덕적 가족주의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원하던 원하지 않든 완성적 사회자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준다. 도구적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는 순간 이들의 약한 신뢰와 연결망은 언제라도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민단체는 오히려 적극적인 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결국에는 특정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특성기반 신뢰와 과정기반 신뢰에 의지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이에 반해 제도기반 신뢰는 소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완성적 집단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서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집합행동의 딜레마와 신뢰의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왜 계량적 분석 결과에서 시민단체가 불신과 부정적 호혜성의 특성을 드러내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이원적 조직형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제도기반 신뢰를 주장하는 연구들(김용학·손재석, 1998; 이재열, 2001; 이재혁, 1998; 1999a; 2006)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와 장치들만이 보편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만 정상적인 시장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제도기반 신뢰에 더해 사적 신뢰가 최소화되고 일반화된 타인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여기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인간상은 무엇인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의 과거 경험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타인과 꼭 같이 신뢰하는 사회를 과연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가? 가족이나 친구를 모르는 타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

제도기반 신뢰를 주장하는 견해는 사적 신뢰가 공적인 규칙과 제도를 잠식하는 사회에서 일견 타당한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신뢰의 과잉으로 인해 시장과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진단도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과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보편적 신뢰를 강조하는 입장은 그라노베터의 지적처럼 과잉사회화 혹은 과소사회화된 인간상에 의지하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 2003. “사회적 신뢰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과 한국사회.” 『사회와 이론』 3: 157-210.
- 김보경. 2005. “문중공동체의 이념과 유교적 사회자본.” 『동양사회사상』 11: 175-205.
- 김상준. 2002. “성찰적 사회자본과 귀속적 사회자본.” 한국NGO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용학. 1996. “연결망과 거래비용.” 『사회비평』 14: 86-118.

- 김용학. 1997. “고신뢰 사회를 향한 연결망 구축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00-103.
- 김용학. 1999. “경제위기의 충격과 신뢰위기: 위기 전후의 경험적 지표 비교분석.” 『사회발전연구』 5: 125-149.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용학·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사상 가을호』: 115-132.
- 김우식. 2004. “연결망과 반연결망.” 『사회와이론』 4: 63-94.
- 류석춘 편. 1992.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 류석춘. 1997a.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현대』 1(여름호): 74-93.
- 류석춘. 1997b.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제도주의적 시각.” 『전통과현대』 3(겨울호): 124-145.
- 류석춘. 1998. “‘유교 자본주의’와 IMF 개입.” 『전통과현대』 6(가을호): 240-257.
- 류석춘. 2002a. “한국의 사회자본: 연고집단.”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149-167.
- 류석춘. 2002b.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15-31.
- 류석춘·김용민. 2002.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33-76.
- 류석춘·왕혜숙. 2006. 『참여연대 보고서』. 자유기업원.
- 류석춘·왕혜숙. 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발전.” 『사회와이론』 12.
- 류석춘·장미혜. 2002a. “한국 비영리·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79-108.
- 류석춘·장미혜. 2002b.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류

- 석춘 · 장미혜 · 정병은 · 배영 공편역. 그린: 169-211.
- 류석춘 · 장미혜 · 김태은. 2002.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109-146.
- 류석춘 · 장미혜 · 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의 비교연구.”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215-255.
- 류석춘 · 최우영 · 왕혜숙. 2005.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 『한국사회학』 39(6): 52-86.
- 박소연. 2005.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찬웅. 1999a.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 19(1): 33-64.
- 박찬웅. 1999b. “경쟁의 사회적 구조: 기업내 신뢰의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조직내 성과.” 『한국사회학』 33(4): 789-817.
- 송호근. 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한국사회과학』 20(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야마기시 토시오(山岸俊男). 2001. 『신뢰의 구조』. 김의철 · 박영신 · 이상미 역. 교육과학사.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이선미. 2004a. “자원결사체가 개인간 신뢰의 상징적 제도인가?” 『한국사회학』 38(5): 81-108.
- 이선미. 2004b. “푸트남의 사회자본론 비판과 비교사회론적 함의: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4: 185-224.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37: 65-93.
- 이재열. 1999.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사회.” 『계간 사회비평』 22: 20-29.
- 이재열.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사회의 제문제.” 석현호 · 류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159-188.
- 이재열 · 박찬웅 · 한준. 2003. “벤처기업의 구조와 전략.” 『한국사회학』 37(2): 1-33.

- 이재혁. 1996. “신뢰, 거래 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30(3): 519-543.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2): 311-335.
- 이재혁. 1999a. “동태적 구조이론의 가능성: 행위와 구조의 되먹임.” 김일철 외.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재혁. 1999b. “사회적 통제의 정치경제학—규범과 관습, 그리고 교환.” 김일철 외. 『한국 사회의 구조론적 이해』(대우학술총서). 아르케.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 40(5): 61-98.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사회와이론』 10: 213-261.
- 장덕진. 1999. “경제위기와 대안적 지배구조로서의 신뢰.” 『계간 사회비평』 20: 69-83.
- 장수찬. 2004a. “변동사회의 NGO와 사회자본: 한국의 경우.” 2004년도 한국 NGO학회/한국비영리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11-243.
- 장수찬. 2004b.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이중적 신뢰구조가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22(2): 359-394.
- 장윤식. 2001. “인격윤리와 한국사회.” 석현호 · 류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134-158.
- 장정호. 2007. “교회 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 S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장충권. 2005.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연결망, 신뢰, 호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병은. 2005. “유권자의 사회자본과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 17대 총선의 두 지역구 사례 비교.” 『한국사회학』 39(5): 83-118.
- 정병은.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재경 안동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 1-28.
- 정병은 · 장충권. 2006.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9-37.
- 정재영 · 장정호. 2007. “교회 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 S 교회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문화』 1-1: 49-79.

- 정재은. 2007. “아파트 주거공동체를 통해서 본 상층계급의 사회자본 축적과정: 방배동 L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우영. 2004. “한국 전통사회 농민조직과 사회자본: 향도, 두레, 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자본: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 1차년도 중간발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특별 심포지엄: 73-104.
- 최우영. 2006a. “종친회의 역사·문화와 현실: ‘기억’과 ‘재현’의 논리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3(5): 307-346.
- 최우영. 2006b.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전통사회의 농민조직: 향도, 두레, 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2: 239-274.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6): 97-132.
- 최종렬 · 황보명화 · 정병은. 2006.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 울산 주전동 어촌계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40(4): 48-97.
- 프랜시스 후쿠야마(F. Fukuyama).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구승희 역. 한국경제신문사.
- 핫포리 타미오(服部民夫). 2007. 『개발의 경제사회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 류석춘 · 이사리 역. 전통과현대.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Mark E. Warren(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8-248.
- Demsetz, Harold, 1967.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7: 347-359.
- Garfinkel, Harold. 1963. “A Conception of, and Experiments with, ‘Trust’ as a Condition of Stable Concerted Actions.” O. J. Harvey(ed.) *Motivation and Social Interac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187-238.
-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ark S.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S.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March/April: 575-586.
- Oberschall, Anthony and Leifer, Eric, 1986. "Efficiency and Social Institutions: Uses and Misuses of Economic Reasoning i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233-253.
- Platteau, Jean-Philippe. 1994a. "Behind the Market Stage Where Real Societies Exist— Part I: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Order Institution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0(3): 533-577.
- Platteau, Jean-Philippe. 1994b. "Behind the Market Stage Where Real Societies Exist— Part II : The Role of Moral Norm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0(4): 386-422.
- Polanyi, Karl. 1945.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London: Gollancz.
- Polanyi, Karl. 1957.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Karl Polanyi, Conrad M. Arsenberg and Harry W. Pearson(ed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conomies in History and Theory*. Glencoe, IL: The Free Press: 243-270.
- Popkin, Samuel L. 1979. *The Rational Peasant: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jandro.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Alejandro Portes(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41.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ortes, Alejandro. and Sensenbrenner, Julia.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of Sociological Journal* 98(6): 1320-1350.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obert. 2002[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35-42.(류석춘 외 편저.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Sahlins, Marshall D. 1972. *Stone Age Economics*. Chicago: Aldine.
- Schutz, Alfred.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Oliver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 Williamson, Oliver E. 1988.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Organization: Promoting a Dialogue.” G. Farkas and Paula England(eds.) *Industries, Firms and Job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159-185.
- Yamagishi, Toshio, Karen Cook and Motoki Watabe. 1998. “Uncertainty, Trust, and Commitment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 165-194.
- Zucker, Lynne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류석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발전 사회학과 경제사회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유교자본주의와 사회자본 등이다.

E-mail: sclew@yonsei.ac.kr

왕혜숙은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비교 연구와 사회자본 등이다.

E-mail: wangwang@yonsei.ac.kr

박소연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문학번역원 기획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다.

E-mail: winter0527@hanmail.net

(2008.4.15.접수; 2008.4.22.수정; 2008.4.29.채택)

Can We Trust Others in General?:
Comparison of the Creation of Trust in Yongo Chipdan and
Voluntary Associations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

Wang, Hye-Suk, Yonsei University

Park, So-Youn,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ey Words: yongo chipdan, voluntary association, social capital, general trust

[Abstract]

Many critics see yongo chipdan, the traditional community based on kinship, home region and school, as a major source of the continued lackluster performance of Korean economies and democracies in recent years. They argue that ascriptiveness and closedness of yongo chipdan create a strong in-group trust and generalized reciprocity and, at the same time, the distrust of others in general, discouraging the formation of general trust. It is also argued that the general trust should be produced based on public institu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market and democracy. For them, the most desirable group that can produce a general trust is an open and horizontal voluntary association.

Howeve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o yongo chipdan and voluntary association this article tries show the results contrary to the recent critics on yongo chipdan and heaping praises of voluntary association. An NGO, a representative voluntary association in Korean society, limits the range of participation among volunteers and constitutes the limited trust among particular

participants to cope with the problem of trust in the course of collective action. A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a representative yongo chipdan, shows a low level of in-group trust and tries to maintain their community through encouraging the 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

The results of this article call for the reappraisal of trust in some respects. First, what brings the development of market and democracy is not the general trust in others in general, but the particular trust produced through the concrete and intimate relationships. Further, the concept of general trust cannot be captured in sociological concept of trust regarding the social uncertainty and risk. Secondly, the organizational mechanisms of groups and attributes of networks tell nothing about the effect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capital. It is needed to examine in detail how trust among in-groups members is produced and maintained and how generalized reciprocity is shared among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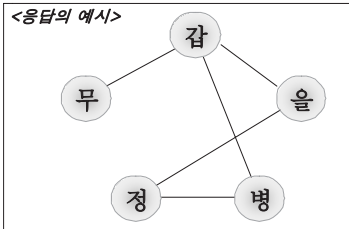
<부록> “현대 한국의 인간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발췌
(자아중심 연결망)

【문3】 귀하가 【문2】 에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섯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 인지, 다음에 예시되어 있는 표와 같이 응답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1) 아는 사람의 이름 (가명, 직함을 쓰셔도 됩니다)	홍길동	김사장	박총무	최씨	
2)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3	2	1	7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6	4	3	조기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5		축구회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7			
⑦ 모임/단체의 회원 (어떤 모임/단체?:)					
⑧ 기타(자세히 표기) _____					
중략					
11) 알고지낸 기간(1년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문4】 귀하가 【문3】 에서 응답해 주신 분들끼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분들끼리 실선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단 문3에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거나 1명만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6】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났거나 또는 연락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먼저 귀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
-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
-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
- 4) 집안일(이사, 김장, 아기돌보기)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 6)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
- 7) 기타 ()

갑	을	병	정	무

【문7】 이번에는 지난 1년 사이에 귀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셨는지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

【문9】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나의 입장	대체로 나의 입장	반반	대체로 그 사람의 입장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0】 만약 귀하가 그 분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1】 만약 【문10】 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2】 귀하가 그 분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3】 만약 그 분이 귀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	반반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4】 그렇다면 【문12】 , 【문13】 의 상황과 같이 그 분들이 귀하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에,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기존에 있는 범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